

출장 보고서
2026. 6. 2. ~ 6. 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경제교육 사례 조사 및 콘퍼런스(Festival of Education) 참석

2026. 6. 30.(화)

송 인 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남 선 혜 전문연구원
김 영 인 전문연구원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로 경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네덜란드 경제교육 전문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경제교육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네덜란드 경제교육의 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여 향후 KDI가 추진하는 경제교육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 또한 The Netherlands Festival of Education에 참석해 경제·금융 교육 관계자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KDI 경제교육 콘퍼런스 운영 방향성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2. 기간 및 장소

- ☐ 기간: 2026. 6. 2.(화) ~ 2026. 6. 8.(월)
- ☐ 장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헤이그

3.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 출장자: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및 경제교육 업무 담당자 2인

순번	이름	소속	직위
1	송인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2	남선혜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기획운영실 교육기획팀	전문연구원
3	김영인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기획운영실 학교경제교육팀	전문연구원

□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일정
2026-06-02(화)	KST	11:55	인천국제공항 출발
	CEST	18:55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 도착
2026-06-03(수)	CEST	13:00 ~ 16:30	네덜란드 재무부 머니와이즈 담당자 면담 및 경제교육 자료 공유
2026-06-04(목)	CEST	11:00 ~ 16:00	네덜란드 중등학교(CSB) 방문 및 교사 인터뷰
	CEST	16:00 ~ 19:30	Aflatoun 경제교육 담당자 면담
2026-06-05(금)	CEST	11:30 ~ 15:00	네덜란드 중앙은행 경제교육 담당자 면담, 전시관 방문 및 경제교육 자료 공유
2026-06-06(토)	CEST	08:30 ~ 16:30	Festival of education 등록 및 참석
2026-06-07(일)	CEST	21:20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 출발
2026-06-08(월)	KST	16:40	인천국제공항 도착

※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일정이 변경됨.

II. 주요 사항

1. 네덜란드 경제교육

- 네덜란드의 경제교육은 학생의 학업 성취와 진로 목표에 따라 세분화된 트랙으로 운영되며, 현실적인 재무 책임과 독립에 대비해 실생활 중심의 자립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둠.
 - 직업을 준비하는 트랙(VMBO)은 졸업 후 취업 또는 직업학교 진학 시 즉시 활용 가능한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일반 중등교육(HAVO) 및 대학 준비 트랙(VWO)의 학생은 심층 경제수업을 받음.
 - 또한 만 18세가 되면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각종 임대차 및 금융 계약의 주체가 되어 재무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제교육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주도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인 ‘머니와이즈(Wijzer in geldzaken)’와 국가 캠페인 ‘머니 위크(Week van het geld)’를 통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 머니와이즈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운영 중인 국가 금융 교육 플랫폼으로 네덜란드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재무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됨.
 - 머니 위크는 매년 3월 약 1주일 동안 현직 금융 종사자들이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경제 수업을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학교 현장에 양질의 금융 지식을 제공함.

2. 네덜란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방문 및 면담

가. 네덜란드 재무부 소개

- 네덜란드 재무부는 금융교육 플랫폼 ‘머니와이즈(Wijzer in geldzaken)’의 설립부터 실질적인 캠페인 실행까지 총괄하며, 국가 경제교육을 이끄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무부 내에 연구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프로젝트 매니저 등으로 구성된 전담 프로그램 사무국(Program bureau)을 두어 프로젝트 기획, 행사 및 국가적 캠페인 실행 등 경제교육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

나. 머니와이즈(Wijzer in geldzaken)

- 머니와이즈는 네덜란드 재무부 주도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범국가적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다수의 파트너가 협력해 국민의 금융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운영
 - 재무부, 중앙은행(DNB) 등의 공공 기관과 은행·보험·연금 연합 등 주요 민간 기관이 연합해 위원회 및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통합
 - 명예 의장인 막시마 왕비가 비전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사무국이 실무를 총괄하며, 연간 296만 유로의 공공·민간 예산(각 50%)을 재원으로 운영
- 플랫폼 전략은 기초 지식, 책임 있는 행동, 금융 건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해 왔으며, 현재는 교육, 정보 제공, 실행 지원의 3대 핵심 축으로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교육 부문에서는 머니 위크 캠페인을 통해 40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현장 강연 및 학습 패키지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학교 내 금융교육을 지원
 - 정보 제공 및 실행 지원 부문에서는 연간 400만 뷰의 웹사이트와 ‘연금 3일’ 캠페인 등으로 필수 정보를 전달하며, 생애주기별 온라인 계산 도구 및 ‘먼저 저축하기’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인 실천을 유도
- 체계적인 전략 운영을 통해 금융교육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생애주기별 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구축
 - 18~25세의 55%가 금융 이해력 목표를 달성했고, 국민의 86%가 자신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 재무부 방문 현장 >



3. Aflatoun International 방문 및 면담

가. Aflatoun International 소개

- ☐ Aflatoun International은 2005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 교육 단체로, 아동과 청소년이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금융 교육(Social and Financial Education, SFE)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음.
- 현재 110개국 이상에서 350여 개의 파트너 기관이 Aflatou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 연계 및 파트너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전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나. Aflatoun International의 교육 체계

- ☐ Aflatoun은 본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사회적 프랜차이즈(Social Franchise)’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본부는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평가, 교사 연수, 네트워크 관리 등을 담당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각국의 파트너 기관이 수행함.
- 파트너 기관은 NGO, 시민사회단체(CSO), 정부 기관, 민간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flatoun의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국의 교육 환경과 문화적 맥락에 맞게 프로그램을 현지화해서 운영함.
- ☐ Aflatoun은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부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제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Aflatoun 프로그램이 국가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운영
 - 코스타리카: 유아 대상 프로그램 국가 교육 과정 반영
 - 인도네시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
 - 네팔: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에 Aflatoun 프로그램 포함

다. Aflatoun International의 금융교육

- ☐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청소년,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구성되어 있음.

- Aflatoun의 교육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 저축, 창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교육과정에는 자기 이해와 강점 발견, 권리와 책임, 공동체 의식과 시민성, 자원 관리 및 지속 가능성, 금융 역량 및 기업가 정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즉, 금융교육을 저축이나 예산 관리와 같은 기능적인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역량 함양과 연계하여 접근하고 있음.
- Aflatoun은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이하 RCT)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파트너 기관의 후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설계와 자료 개발은 본부가, 수업 운영과 자료 수집은 현지 파트너 기관이 담당함.
- 최근 인도와 감비아에서 실시한 RCT 결과에 따르면, 교육 후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뿐 아니라 문해력(literacy) 및 수리력(numeracy)이 향상되었으며 교육 참여율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라. Aflatoun International의 교사 연수

- 주 교육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이지만, 프로그램은 교수자를 중심으로 설계·보급되고 있음.
- 교사용 지도서 형태의 교육 자료를 개발·제공하여 교사가 직접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각국의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뿐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트레이너(trainer)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Aflatoun의 교사 연수는 금융교육 내용 자체보다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법에 중점을 두고 운영됨.
- 연수의 핵심 목표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참여와 탐구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역할을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연수는 약 5일간 진행되며 Aflatoun의 교육철학과 교육자료에 대한 이해, 활동 중심 교수·학습법(active learning), 모의 수업 진행 및 평가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음.

<Aflatoun International 방문 현장>



4. 네덜란드 중등학교 CSB 방문 및 수업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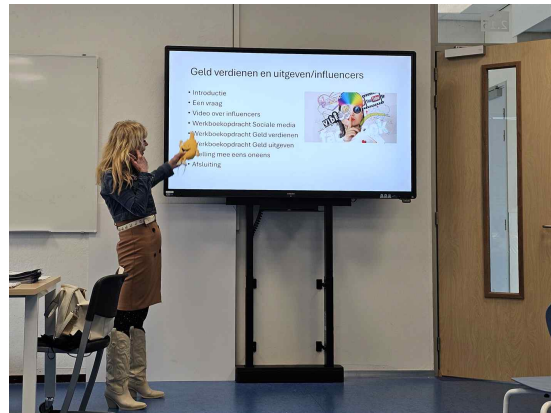
가. 수업 내용

- ☐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인 CSB(Christelijke Scholengemeenschap Buitenveldert)를 방문하여 한국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금융 수업을 참관함.
 - 네덜란드는 초등 교육 이수 후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세 가지 중등교육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학함.
 - 실무 및 직업 중심의 VMBO, 일반 중등교육 과정인 HAVO, 학문 및 이론 중심의 VWO로 나뉨.
 - 참관한 수업은 진학 트랙이 결정되지 않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3차시로 구성된 수업 중 마지막 차시에 해당
- ☐ 수업 주제는 Geld maakt gelukkig(Money makes you happy)로, 1차시는 소비와 저축, 2차시는 금융사기의 위험성, 3차시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에서의 소비를 다룸.
 - 수업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수익 창출 방식,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Marktplaats 이용 시 주의할 점, 인터넷 쿠키(Cookies)와 맞춤형 광고 노출의 원리 등에 대해 학습함.
 - 특히 금융 인플루언서(Finfluencer)가 SNS에서 수익 창출 방법을 소개하거나 투자 관련 유료 강의를 판매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

나. 교사 인터뷰

- 수업 종료 후 해당 수업을 진행한 교사를 대상으로 네덜란드의 경제 및 금융교육 현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함.
- 네덜란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핵심 목표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중등교육에서는 진학 트랙에 따라 경제(Economie)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데, 금융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에 별도의 교과 또는 독립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경제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며, 시장과 가격, 수요와 공급, 물가와 인플레이션 등 미시 경제학 및 거시 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다루고 있음.
 - 반면 금융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성을 인식한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네덜란드에서는 청년층의 채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금융교육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18세부터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며, 세금·보험료·통신요금 등의 연체와 후불결제 서비스(Buy Now Pay Later)의 무분별한 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8~24세 청년들이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에 2028년부터는 국가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포함될 예정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학교의 금융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함.

<학교 현장 방문>



5. 네덜란드 중앙은행(De Nederlandsche Bank) 방문 및 전시 체험

-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은 경제교육의 주요 주체로서, 복잡한 경제 지식을 대중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암스테르담 본사에서 대중을 위한 방문자 센터(De Nieuwe Schatkamer)를 운영하며, 실감 나는 체험형 경제교육 공간을 제공
 - 2025년 암스테르담 본사를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방문자 센터 기능을 확장해, 대중과 대화하고 경제 및 금융 교육을 제공하며 상호작용형(Interactive) 전시를 진행하는 새로운 복합 소통 공간을 조성
 - 상호작용형 전시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경제의 기본 흐름과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느끼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또한, 화폐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 등을 소개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 및 일반 시민의 거시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실물 경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네덜란드 중앙은행 방문 현장 >



6. The Netherlands Education of Festival 참석

가. Education of Festival 소개

- Festival of Education은 2010년 영국의 Wellington College에서 시작한 국제 교육 콘퍼런스로,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 현황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임.
 - 교육자 간 아이디어 공유와 혁신 촉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Festival of Education은 이후 영국을 대표하는 교육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2026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뿐 아니라 중국·스페인 등에서도 진행
- The Netherlands Festival of Education은 유·초·중등 교원, 학교 관리자, 교육정책 관계자, 교육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교육 콘퍼런스로 강연, 워크숍, 사례 발표, 교육자료 전시 부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됨.
 - 네덜란드에서는 헤이그(Den Haag)의 Edith Stein College에서 개최되었으며, 2026년 행사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디지털 및 AI 기반 수업 혁신 등 교육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나. 주요 세션 정리

□ AI as a Companion to Human Learning

- CivAI의 창업자이자 CEO인 Pascal Mariany가 진행한 세션으로, 교사들과 함께 개발한 EduGPT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파트너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AI가 교육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함.
-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한 후 적용·분석·평가·창조의 과정을 거쳐 학습이 이루어지나, 최근에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곧바로 창조(create) 단계로 건너뛰어 결과물을 생성한 뒤, 이에 대한 이해나 분석, 평가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교사는 AI 사용을 금지하기보다 학생들이 AI를 사고의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분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AI 활용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간이 최종 통제권을 유지하는 'Human in the Loop'에 있음. AI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지만, 평가와 최종 판단은 인간이 수행해야 함.

- EduGPT는 AI가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교사의 코칭을 지원하는 학습 동반자로 활용할 수 있음.

□ From AI to Z: Teach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rimary Classroom

- 네덜란드 AFNORTH International school의 교사인 Rachel Allen이 진행한 세션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K-8) 학생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수업 사례 소개
 - AI를 활용한 학습(learning with AI)이 아니라, AI 자체를 이해하는 학습(learning about AI)에 초점을 둔 수업 사례를 공유함.
- 학생들이 AI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진법과 컴퓨터의 작동 방식, 알고리즘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프롬프트 작성 활동을 통해 AI는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학습하도록 함.
- 또한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twinpics.ai 웹사이트에 접속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관찰한 뒤, 100자 이내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해당 이미지와 최대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해 보는 활동을 진행함.
 - 활동 이후에는 AI 생성 이미지에 더욱 가까운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Beyond Teaching Moves: Developing Teacher Decision Making

- 영국의 교육 컨설턴트이자 연구자인 Adam Kohlbeck가 진행한 세션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특정 교수 기법에 대한 이해도나 활용 여부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적응적 전문성(adaptive expertise)’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
 - David Berliner(1988)의 연구 결과, 초임 교사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숙련된 교사들은 오히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 교사의 전문성은 교수법의 숙달 여부가 아니라 학습자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에 있음.
- 효과적인 수업은 특정 교수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목표와 학생의 특성, 교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 교사의 전문성은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는 ‘반복적 전문성(routine expertise)’을 넘어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변형하는 ‘적응적 전문성(adaptive expertise)’으로 확장되어야 함.
- 따라서 교사 연수나 수업 코칭은 우수 수업 사례나 교수법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의사 결정 과정을 공유·성찰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The Power of Questions: Your Most Effective Tool for Accelerating Learning

- Edward Watson은 InnerDrive의 창업자이자 CEO로, 세션에서는 학습을 촉진하는 질문의 유형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질문 설계 방법 및 활용 방안을 소개함.
- 질문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운 질문은 모두 학습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고민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려움(desirable difficulties)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발표자는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학생 지목 발문(cold calling)’의 활용을 제안함.
 - cold calling은 자발적으로 손을 든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학생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질문의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cold calling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안전하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과거처럼 정답 여부를 평가하거나 학생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을 ‘논의에 참여(invitation to join a discussion)’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Instructional Illusions: 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

- 교육심리학을 연구하는 Paul Kirschner 명예교수가 진행한 세션으로, 학교 현장에서 마치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실제로는 학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착시(illusions)’에 대해 소개함.

- 첫 번째는 ‘참여 착시(engagement illusion)’로, 학생들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반드시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
-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량이나 흥미 수준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사고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두 번째는 ‘성취 착시(performance illusion)’로, 시험 성적 등의 결과만으로는 학습의 실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시험을 위한벼락치기나 반복 암기 등은 즉각적인 성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세 번째는 ‘동기 착시(motivation illusion)’로, 높은 동기가 반드시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동기는 학습을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자체가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학습 과정에서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할 때 동기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현장에서 관찰되는 참여, 성취, 동기과 같은 요소들이 실제 학습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있으며, 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학생들의 인지적 처리 과정과 장기 기억 형성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함.

<Festival of Education 콘퍼런스 현장>



Ⅲ. 시사점

- 네덜란드는 머니와이즈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 머니와이즈는 공공과 민간이 예산을 각 50%씩 균등하게 부담하고 주요 금융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현함.
 - 한국도 경제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재정 및 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 네덜란드의 중등 경제교육은 학생의 진로와 교육 트랙에 따라 교육 내용과 수준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금융교육을 단순한 경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회성, 시민성, 기업가 정신을 포괄하는 통합적 역량 교육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또한 만 18세 성인 전환기에 직면하는 건강보험 가입, 임대차 계약 등 실질적인 재무 책임과 독립에 대비한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이론 위주의 교육을 넘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경제교육을 제시함.
 - 한국의 경제교육도 성인이 된 직후 직면하는 주거 계약, 대출, 보험 등 실제적 재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해야 함.
- 교사의 전문성은 특정 교수·학습법의 습득보다 수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능력에 기반하므로, 교사 연수 역시 기법 전달 중심에서 교사의 판단과 성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우수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교사가 해당 수업에서 어떠한 목표와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공유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해야 함.
 - AI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교사는 학습 상황을 해석하고 적절한 교육적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교사 연수 역시 이러한 전문적 판단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함.

- AI 교육의 초점은 도구 사용법보다는 사고력 향상이어야 하며, 자료 개발 시 도구 소개에 그치지 않고 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 재무부와 Aflatoun은 개발한 교육자료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자료 및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내부 인력뿐 아니라 대학 등 외부 연구자와 협력하여 RCT를 실시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있음.
 - 한국 또한 경제교육 자료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번 출장을 통해 네덜란드 금융교육 전문 기관인 Aflatoun과의 기초적인 업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국가 간 경제·금융 교육 분야의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